

젊은층·부부 관람객 복적...4일만에 300만명

황금종려상 '기생충' 개봉 첫 주말
송강호 등 주연배우들 연기력 빛나
"빈부차이로 갈리는 삶의 모습 씩씩"
"불편했다" "무슨 뜻 이해 안된다" 반응도



개봉 4일만에 300만명의 관객을 돌파한 영화 '기생충'을 상영중인 CGV 총창로점에서 관객들이 '기생충' 티켓을 발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찾는 관람객들로 극장가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날 30일 개봉한 영화는 4일만인 2일 300만명을 넘어선 흥행기록을 일궈내는 중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일 까지 광주에서는 7만7747명이 관람했으며 전남지역에서는 4만7105명이 영화관을 찾았다.

토요일이었던 지난 1일 오후 3시께 찾은 광주 CGV 광주터미널 상영관은 20대 젊은이부터 60대까지 물려든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관람객들이 줄지어 선 무인자동 발권기에는 하나같이 '기생충'이란 제목이 띄워져 있었고, 영화 예매 사이트 역시 만석이 잇따랐다.

영화가 시작되자 200여개 객석은 빈 자리 없이 가득 찼다. 숨을 죽이고 영화에 집중하던 관객들은 긴장되거나 충격적인 장면엔 탄식을 감추지 못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중에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영화 '기생충'은 전원 백수에 반하지 생활을 하며 근근이 연명하던 한 가족의 아들이 과외선생 면접을 보러 가면서 시작되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따라간다.

영화는 130여분 동안 관객들에게 뭔가 모를 불편한 분위기를 전한다. 영화가 중반부에 이르면, 표면적으로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부유한 이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막힌 가족에게 뿌리내린 불안감이 실감나게 표현된다. 특히 기막힌 가족이 비싼 술로 한바탕 회식을 하는 장면은 어두운 조명, 좁은 시야와 함께 작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의 삶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제대로 보여준다.

송강호의 연기력은 이번 영화에서도 빛났다. 변변한 직

업도,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무책임한 가정의 역할을 충실하게 연기했으며, 특히 '자신의 냄새'를 인식하게 되는 대목에선 관객들도 절로 자기 냄새를 맡아보게 만들었다. 딸 기정으로 분한 박소담의 연기도 눈길을 끌었다. 가난한 삶 속에서도 자존심을 놓지 않고 오히려 부자들을 얹잡아 보는 기정의 성격을 섬세한 연기로 표현해냈다.

영화 곳곳에서 드러난 상징적 요소들도 인상적이다. 돌 하나에서 핸드폰, 텐트, 번개가 이르기까지 모든 사물에 의미를 숨겨뒀던 재미 외에도 곱씹어보는 재미까지 쟁겼다.

영화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여러 차례 관람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개봉 이후 포털 사이트에선 한동안 '기생충 해석'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으며, '유튜브'에 '기생충 해석'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들이 40만을 웃도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영화가 불편했다는 의견과 함께 선정적인 장면을 언급하며 15세 관람 등급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

다. 누리꾼들은 "정신적으로 공격받는 영화를 싫어하는 이들에게 추천하지 않는다", "재미있다고 보다는 씩씩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극장을 찾은 관객 박경애(여·48·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황금 종려상 수상작이라길래 일찍 극장에 와서 쟁겨봤다"며 "자식들을 위해 과외를 소개받고, 돈을 아끼지 않는 등 현실적인 모습이 엄마들의 공감을 샀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선 가난한 삶과 부유한 삶의 차이를 현실적으로 묘사한 점이 공감대를 일으켜 칸 영화제에서 수상한 듯 하다"고 덧붙였다.

이승연(27·광주시 남구 송하동)씨는 "처음엔 유쾌한 이야기라 편하게 봤는데, 후반부에선 빈부차이로 갈리는 삶의 모습이 씩씩했다"며 "특히 똑같이 비가 내리든 부자는 낭만적으로 비오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가난한 이는 반지하 집이 물에 잠기는 등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같아 불편하고 답답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난해 '제29회 광주학생연극제' 최우수작품 동산여고의 '우리집이야' 공연.

광주학생연극제 7개 팀 열띤 경연

8~14일 동산아트홀

'제30회 광주학생연극제'가 8일부터 14일까지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펼쳐진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광주연극협회와 유·스퀘어문화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연극제에선 광주 소재 고등학교 7개 팀이 7일에 걸쳐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8일 성덕고의 'Sing'을 시작으로 전대사대부고 '파란나라' (9일), 호남삼육고 '다녀왔습니다' (10일)가 공연된다. 이어 광주제일고 '아름다운 사인' (11일), 문정여고 '지상최후의 농담'

(12일), 전남여고 '산국' (13일), 동산여고 '금희의 오월' (14일)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팀은 오는 8월 27일부터 충남 예산에서 펼쳐지는 '제23회 전국청소년연극제' 본선에 광주대표팀으로 출전하게 된다.

지난해 제29회 광주학생연극제는 동산여고등학교가 '우리집이야'로 최우수작품상을 받았으며, 전국청소년연극제 본선에서 우수연기상, 특별개인연기상 등을 수상했다. 무료 관람. 문의 062-523-7292.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우리집을 문화공간으로... '하우스테이너' 강좌

5~7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푸른마을 공동체센터서

'하우스테이너' (Housetainer)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소개하는 강좌가 마련된다.

(사)전문직여성(BPW)한국연맹무등클럽(회장 김성미)이 하우스테이너 강좌를 광주시 후원으로 오는 5일부터 7월 11일(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푸른마을 공동체센터)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하우스테이너'는 하우스와 엔터테이너의 합성어로 가정집을 대중에게 개방해 집의 개성과 스토리에 맞게 전시회, 음악회, 패션쇼, 강의 등 각종 문화행사 및 모임의 기획하고 진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사적공간인 집이 문화와 소통의 사회적공간이 되고, 경제활동도 겸하는 공유경제의 새 모델이 되는 셈이다.

세부일정은 5일 '하우스테이너의 이

해' (김근화 여성자원금고 이사장), 12일 '문화기획의 프로세스' (박지현 문화토리대표), 'SNS를 활용한 홍보전략' (배미경 더킹핀대표), 19일 '파티플래너의 이해' (송기희 호남대학교), '파티 음식 및 푸드스타일링' (박송희 자연음식연구가) 등으로 진행된다. 26일은 공연예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현경(에필드플랫 대표), 송민경씨(피아니스트)가 작은 음악회를 연다. 특히 7월 11일은 수강생들이 목화의 집(가정집)에서 하우스파티를 갖고 실전훈련을 진행하며 호남대학교 조교과학생들이 음식 도우미 지역봉사에 나선다.

(사)전문직여성(BPW)한국연맹무등클럽은 이번 강좌 이후에 '하우스테이너 양성과정'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비용은 무료. 문의 010-9482-823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단돈 1000원으로 '백찬영의 음악사전' 보세요

10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단돈 1000원으로 볼 수 있는 공연 '천원의 낭만'이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 무대에 오른다. 이날의 공연은 '알면 재밌는 백찬영의 음악사전'.

하모니카, 아코디언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백찬영과 함께 보컬 J.UNA, 퍼커션 정철, 피아노 김승범이 무대를 꾸민다.

이날 공연에선 피아졸라의 'Adios Nonino'와 'Libertango', 이문세 '옛사랑', 스티비 워너 'isn't she lovely', 방탄소년단(BTS) 메들리를 재즈, 탱고, 삼바 등 다양한 장르로 선보인다.

백찬영은 영화, 드라마, 방송, 공연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로 영화 '탐정 더 비기닝', 드라마 '일리있는 사랑', 예능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 '히든싱어', '슈가맨' 등에서 연주자로 참여했다. 보컬 J.UNA는 에반스 라운지 크리스마스 기획 공연, KT&G 상상마당 SAEN 엔도져 공연 등에서 활동 중이며 퍼커션 정철은 빈지노, 멜로망스, 김범수, 신승훈, 소란 등 음악가들의 콘서트 연주와 음반 녹음 등에 참여했다. 피아노 김승범은 평창동계올림픽 공연에서 연주하고 한상원 밴드, 박재범 등에 세션으로 참여했다. 전석 1000원, 8세 이상 관람가. 문의 062-226-2032.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학 연구 소모임 '소탐대담' 지원사업 선정

광주학 연구 소모임 '소탐대담(小探大談)' 지원사업 선정이 완료됐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운기)은 이번 지원 사업에 연구과정 2개팀 '광주시간여행', '담다(談-多)'와 일반인 2개팀 '아따그라데', '동밖에 마실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간여행' 팀은 '광주 백년시장의 서사와 아우라'라는 주제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송정·양동·비야시장 등을 역사적 사건, 유희의 장소, 향수와 기억의 장소 등의 주요 키워드로 조사를 진행한다. '광주와 다성적 도시공동체'를 주제로 선정된 '담다(談-多)' 팀은 근현대대에 만들어진 공간으로서의 '도시광주'의 형성과정을 조사하고 공동체 문화의 토대를 살펴볼 계

획이다.

'아그라데' 팀은 '사투리의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주제를 수행할 청년단체다. 이들은 우리지역 젊은이들의 언어습관에서 드러나는 방언적 특징을 조사하고 활용해 문화행사 홍보물로 각색할 예정이다.

'동밖에 마실길'은 동명동에 거주하는 작가, 사업가, 연구자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6명의 주민들로 '동밖에 10대 마실길의 변천과 주민생활 연구'를 진행한다. 이후 역사문화자원 10종을 선정, 조사해 마을 문화사를 예세이로 엮어낼 계획이다.

문의 062-670-7434.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어려분~ 부자되세요!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전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루팡담강정

북구 용동동 우방아이유헬싱가 매운맛, 달달한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 010-3844-7145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전문요 약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 010-4106-5055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약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학산운명감정원

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약명, 개명, 궁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조매 (경력33년) 원장 전용석 ☎ 010-8003-9000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꾸니 무료 친절.신용.본위

☎062)222-2424, 011-664-220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정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백세쭈꾸미식당

전남 나주시 이창동 158-16번지 쭈꾸미, 삼겹살, 갈비, 오리로스

☎061)332-7313, 010-8224-7313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시험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신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약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곡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폴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꼬아전통마사지 전문점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25, 2층 (남평5일시장앞 대로변 새건물2층) 최신시설완비 남.여 마사지 전문점 친절 신용 본위

☎010-9277-2011, 010-4624-8457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력·양력)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